

이라크 전후처리 상황 및 추가파병 합의

이라크전쟁은 종료되었으나 범세계적인 테러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의 안정화 작전은 금년 4월에 들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한때는 미국이 주도한 '의지의 동맹'이 해체될 위기로까지 몰렸다. 미국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던 일방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이라크의 주권회복 과정을 유엔에 맡겼다. 그러나 전후복구의 전제인 치안을 위해 앞으로도 2년여간 작전은 계속 되리라 판단하고 있다.

수니파 저항군과 시아파 반란세력에 대한 포위작전은 점차 정치적 해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미국민의 철수 여론도 무게를 더해 갈 것이며 세계는 테러에 의한 혼란의 와중에 빠질 것이다.

한국군 자이툰 부대 파병은 이미 국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대외적으로도 수차례 공약된 바이다. 일시적인 현지 상황 악화에 의해 약속이행 자체가 동요되는 듯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격동기에 처한 한반도의 안정과 미래적 번영을 위해서도 안보동맹국인 미국의 노력에 우리의 뜻을 실어주는 것은 중요하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執筆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문 광 건 군사기획연구센터

(02)961-1384/moonkk@kidare.kr

가
,
가
.
가
가

2 週刊國防論壇

가 ,

(CPA)

1

4

.1)

가

가 ,

가 .

가

가

.2)

(4 8 -10)

가가 ,

2

.3)

가

가

가

13 7 2 1

3

가

50~100

가

가

가

“□”

가

가

3.11

.4)

9.11

(IO)

3.11

가

1,300

1

(370)

(300)

가

가

(coalition of the willing)

.5)

.6)

35

13 5

.7)

가

1 1

1,700

.8)

가

3가

30

□□

,6

가

(OIF)

.9)

4 週刊國防論壇

가 가 “□ ”

“□ ” (GCC) 2 . 4

1 6 “□ ”

3 가 , 가

1 4 . 550

. 2 7 1,650

1,260 6

30 “□ ”

.10) 675

3 가 4

3 가

2 가

850

(730), (500),

가 (470) 가

7 가

160 550

(, 25) “□ ”

가 가 가 ,

가 가

. 1

가 가 가

가 가 2 가3

가

(57) (OC)

反 (Thulfikar Army)

(Kazem Hossein Haeri)가

(Lakhdar Brahimi)

가

1

1

가

가

2

5

2

“□

”

1

6 30

(IGC)

3 ~6

(Caretaker Government)

가

1

가

가 25

IGC 7 1

가

IGC,

, 1

“□

IGC

”

6 週刊國防論壇

IGC
가
6 30
5
“□”
가
(elite force)
가
가
가
(.12)
(exit strategy)
가
가
가
가
4
10
2
(.11)
가
가
“□”
(land of surprise)
6 30
(CPA)
가
670
(oil-for-food program)
가
(loyalty)

가

5

, “□

240

”

B-52 가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襟度)

10

2

가

가

2

2

172

.13)

(30%

)

10%

(1 800) 가

3

가

.14)

가

(peacemaking)

2~3

가

(peacekeeping)

